

# 목포문학상 국내대표 문학상 발돋움

국내외 1136명, 3728편 접수  
지난해 315명 비해 3배 증가  
장편소설 상금 국내 최고 1억

2021목포문학박람회 '목포문학상 공모전'이 국내외 문학인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국내 대표 문학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장편소설, 시(시조), 희곡, 문학평론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30일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전국의 문학인과 해외 6개국(미국·일본·독일·캐나다·호주·캄보디아) 교민 등 총 1136명이 3728편을 응모해 최종 당선작 선정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315명 1167편에 비교하면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시(시조)가 지난해 144명에서 648명으로, 희곡이 지난해 10명에서 91명으로 참

가인원이 대폭 증가했으며 장편소설에는 371편이 접수됐다. 장편소설 출판을 담당하는 ㈜문학과 지성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장편소설 공모전을 기준으로 150여편 내외를 예상했으나 훨씬 많은 작품이 응모된 만큼 출판사와 심사위원들 모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 목포문학상이 높은 열기를 보인 것은 목포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오는 10월 열리는 목포문학박람회와 연계해 총상금이 1억3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목포문학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인 목포문학상 공모전의 상금은 장편소설이 국내 문학상 단일부문 최대인 1억원, 시(시조)·희곡·문학평론은 각각 1000만원으로 총 상금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통해 심사위원 선정 및 방식을 논의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저명한 심사위원을 위촉해 예심, 본심 등 엄정

한 과정을 거쳐 최종 당선작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편소설의 심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당선작을 출판하는 ㈜문학과 지성사와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당선작은 오는 9월 1일 목포문학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박람회 기간인 10월 9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상금 1억원인 장편소설을 비롯해 올해 목포문학상 공모전에 보내준 국내외의 많은 관심은 높아진 목포문학상의 성장성과 잠재력, 브랜드가치를 보여준다"며 "목포문학상이 국내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발판이 되는 등 한국문학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학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박람회인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화관, 평화광장 등 목포 전역에서 열린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



땅콩산업 발전 업무협약식.



땅콩을 이용한 가공품.

## 신안군-크레이지피넛 땅콩산업 발전 협약

### 가공산업·제품 개발 등 협력

신안군이 땅콩가공 전문업체인 (주)크레이지피넛과 손잡고 신안 땅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안땅콩은 자은면 청정지역 사질토양에서 재배돼 품질이 우수하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크레이지피넛은 땅콩오일, 볶음땅콩, 땅콩버터를 생산하는 땅콩가공 전문업체다. 이번 협약은 신안군이 땅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더 나아가 땅콩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협약 체결을 통해 땅콩산업 육성·가공품 개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물론 땅콩을 이용한 가공품, 체험프로그램 개발, 가공품 공동개발 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땅콩을 다양한 소포장 제품 및 가공상품으로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자은땅콩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 땅콩 음식점, 체험장, 다양한 가공제품, 기념품 생산과 판매 등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명량해전 승전지인 해남군 우수영이 관광객들이 머물며 관광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난다. 해남 우수영 야경. (해남군 제공)

## 해남군 우수영,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난다

### 스카이워크·해상케이블카 이달까지 설치 마무리 개장

명량해전 승전지 해남군 우수영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난다. 해남군에 따르면 우수영 관광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워크와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군은 신규 조성되는 스카이워크와 케이블카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야간 운영을 개시해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둥이 다리로 유명한 진도대교와 울돌목의 환상적인 경관이 어우러진 야간경관은 지역의 새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는 이달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안전검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길이 110m의 울돌목 스카이워크는 회오리

바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 위를 직접 걸어볼 수 있는 장소로, 강강술래 등을 모티브로 해 둥근 모양으로 조성된다. 바다쪽으로 직선거리 32m까지 돌출되고, 바다를 투영 유리로 만들어 스릴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총 길이 960m 울돌목해협을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는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타워를 잇는 노선으로 10인승 곤도라 26대가 투입된다. 군은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가 서남권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기 정착하기 위해 임시상가 건립과 푸드트럭 등을 배치하고, 주차장과 도로 표지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스카이워크와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거센 물살로 유명한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스릴 있고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해상케이블카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무안군 행복초·망운중 2곳에 공기정화 식물 활용 수직정원 오염물질 저감...교육환경 개선

무안군은 아이들의 교실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정원(바이오 월)을 행복초와 망운중 2곳에 조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실 내 공간에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한 벽(바이오 월)을 조성해 미세먼지와 공기 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 공기정화기를 이용한 공기정화가 아니라 식물을 활용한 자연적 공기정화와 천연 가습효과까지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과 호응이 뜨거웠다. 바이오월은 가로 5.0m, 세로 1.2m 크기의 교실 뒤쪽 벽면을 반 정도 채우는 크기이며 내부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착·흡수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효과가 뛰어난 스킨답서스, 테이블야자, 산호수, 아비스 등 다양한 관엽식물이 식재된다. 식물의 생육상태에 따라 스스로 물을 공급하는 자동 관수시스템과 생육환경을 조절하는 생장조명 등 자동화 관리기술을 적용해 아이들과 함께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운영도 쉽다. 대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해 공기정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만족도를 높인 점도 특징이다. 단순히 수직정원 설치에 그치지 않고 원내활동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식물의 공기정화 원리와 과정을 이해시키고 10회에 걸친 다양한 원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아이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바이오 월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해남군은 지난 10일 (재)해남문화관광재단 창립 발기인총회를 갖고 이사회 구성과 정관 등 안건을 심의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해남군 제공)

##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창립발기인 총회

### 2팀 5명...내달 중순 업무 개시

해남군은 지난 10일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민선7기 문화관광분야의 핵심사업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전문적인 정책을 수행할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출된 이병욱 대표이사를 포함한 2팀 5명으로 출범, 9월 중순 업무를 시작한다. 앞으로 관광 및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개발 수립, 관광마케팅사업 종합 기획, 지역관광 진흥사업, 관

광상품 개발, 예술인 지원 등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모바일·개별관광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춰 스마트한 관광환경 조성 및 생활·생태·음식관광에 중점을 두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말까지 관계기관에 재단 설립허가와 설립 등기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는 업무 확대를 통해 4팀 20명까지 조직을 확장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남군이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